



교보문고개점 25주년과 책의 미래

‘거대 서점의 작은 역사’

글_김영룡 서울대강사, 문학박사(독문학)

현대의 대도시는 플래카드가 넘치는 세상이다. 광화문 네거리의 교보빌딩에도 대형 걸개그림이 종종 걸린다. 플래카드는 활자가 지닌 미디어적 특성에 대한 또 다른 기술적 표현일 것이다. 현대사회의 광고문구에서는 이제껏 모든 문자 형태의 침전물들이 부유하는 데이터의 흐름이 포착된다는 벤야민의 견해를 쫓지 않더라도 서울 중심가의 빌딩 외벽에 내걸린 플래카드들에 보이는 광고 카피들이 대중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다양한 서체와 그래픽의 도움을 받고 있음은 자명하다. 광화문 교보빌딩의 플래카드는 때로는 고은 시인의 시구 한 구절에서, 때로는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스포츠 행사의 응원문구에서 영감을 얻은 카피들로 장식된다. 때로는 잔잔한 배경색에 보수적인 서체로 정갈한 이미지를 선사하기도 하지만 종종 파격적인 문구만큼이나 튀는 색채와 ‘디자인’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구텐베르크 은하계의 무수히 활자화된 책속에서 피난처를 찾고 자율성을 영위할 수 있었던 문자는 이제 건물 외벽을 장식하는 대형 플래카드들에 아로 새겨진 광고문구들의 모습으로 가차 없이 저자 거리로 내던져진다. 책속의 문자가 말 그대로 ‘읽혀지는’ 문자라면 광고의 그래픽은 ‘문자화된 그림’이다. 플래카드는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수동적·감각적인 수용을 통해 체험되어지는 문자인 것이다. 뉴미디어의 시대에 ‘IT강국’의 심장부에 여전히 건재한 교보문고의 건물 외벽에 내걸린 대형 플래카드는 ‘쿨(cool)한 매체’가 ‘핫(hot)매체’를 넘어서고, 전통적인 활자문화의 ‘경직성’이 해체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아마도 올해로 개점 25주년을 맞이한 국내 최대의 교보문고가 은연중에 비추고 있는 속내 인듯하다.

현대의 대도시는 역동적이다. 25년 전 광화문의 종로 1

가 1번지의 교보빌딩 지하에 교보 문고가 등지를 틀던 시절 광화문 네거리에서 마주 대할 수 있었던 많은 풍경들은 지금은 더 이상 볼 수 없다. 들국화의 ‘행진’이 흘러나오던 레코드 가게들은 이미 오래전에 문을 닫았다. 성룡의 영화를 보기 위해 한없이 줄을 서던 극장 터와 군데군데 기와집을 끼고 있던 몇몇 학교 터들은 지금은 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고층 빌딩의 숲으로 바뀐 지 오래이다. 매년 봄이면 연례 행사처럼 최류탄 내음에 고통받던 광화문의 이순신 장군 동상은 이제 붉은 악마의 응원 열기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메가패스’ 장군의 이미지로 남아 있을 뿐이다. 25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세월동안 여전히 광화문 네거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교보문고의 존재는 어쩌면 역동적인 서울의 거리 풍경에서는 몇 안되는 예외인 듯하다.

현대사회는 미궁과도 같다. 현대인은 항시 길을 잃고

있다는 느낌을 지닌다. 현대도시 거주민들의 마음은 항상 무엇인가를 빠뜨리고 거리에 나온듯한 느낌을 저버릴 수 없다. 바깥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어느 한 가지에 집착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저 정처 없이 배회한다. 의미 중심이 사라진 도시에서 모든 장소가 똑같아지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게 되어 버린 것일까. 나의 실존적 배경을 자리 매김할 수 없는 현대인들에게 사회는 미궁과도 같다. 인류사에서 보자면 문자가 없던 시절에도 점성술이나 의술의 형태로 하늘의 별자리를 '읽고',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몸을 '읽었다.' 읽는 행위는 인간의 생존에 직결된 본능적 행위였던 것이다. 이후 문자가 발명되고 문자를 통해 축적·저장된 경험과 지식을 읽어 내는 것은 인류사 발전의 근간이 되었다. 고대의 파피루스 두루마리(volominum)가 코덱스(codex)의 형태를 지니게 된 서기 2세기 이래 종이의 발명과 구텐베르크의 인쇄혁명을 거치고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각인된 직사각형 모양의 책이 지닌 형태적 특징은 너무나도 버거운 것이나 책이라는 매체와 그 책 속에 담긴 지혜를 끄집어내는 독서의 기술은 미로와도 같은 삶의 양태에 정향성을 제공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중세에 이르기까지 서구에서 책과 지식을 재생산하는 것을 수도원이나 대학과 같이 공공적인 기관에서 전담하였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책을 읽는 것, 그리고 전래의 책을 다시금 후대를 위해 다시 편집하고, 새로이 책을 쓰는 행위는 그 당시 사회를 총체적으로 읽어내려는 사회적 기제로 작동했으리라. 가독인구의 증가와 낭독이 아닌 속독의 전파는 이러한 사회규범적 서적 생산에 변화를 가져왔고, 수도원과는 독립적인 필경사 마이스터의 대두가 이제껏 책이라는 매체의 공적 기능을 사적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서적 판매의 시초라고 이야기되어진다. 15세기에 이르러서야 주문에 의하지 않고 독자 판매를 목적으로 책을 만들어 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출판 시장의 기대가 아마도 구텐베르크의 활자인쇄술의 발명으로 대변되어지는 도서의 대량 생산 체계와 유통체계의 확립을 가속화 시켰을 것이다. 문제는 글자를 읽는 행위의 전제가 더 이상 문자의 습득이 아니라, 경험의 담지체로서의 문자와 언어의 역할이 교환의 수단으로 미디어적·기술적인 전환을 보이고 있는 뉴미디어 시대의 문화적 지형도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미로와도 같은 현대 사회에서 출구를 찾지 못

한 채 맴돌기만을 되풀이 할지 모른다는 절박감인 것이다. 이러한 절박감이 '사회 교육적 기능을 살린 문화 공간의 창출'을 모토로 하는 교보문고 존립의 타당성으로 작용하지 않는가 싶다.

현대는 전자미디어 시대이다. 개인 컴퓨터와 인터넷, 수많은 블로거들은 이제까지의 구텐베르크 은하계에서와는 다른 양상으로 세계의 문자화를 시도한다. 영상화면의 기호와 이미지들은 더 이상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활판 인쇄술적인 것이 아니다. 활판 인쇄술이 조건 지웠던 자아의 이미지가 전자시대에는 어느새 바뀌었다는 사실을 교보문고의 걸개그림들 속에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전자출판이 일반화되었음에도 '인쇄된 책' 들에는 미리 규정지워진 판형에 따라 일정한 크기와 일정한 모양의 서체들로 조합되어지고 고정된 언어들만 줄을 서서 교보문고의 서고에 꽂힌 채 독자를 기다린다. 교보문고의 기나긴 서가의 행렬은 마치 미로와도 같다. 어느 동화작가의 말처럼 여전히 독서 행위는 계속되어야만 할 인생의 가장 고귀한 모험이라는 데는 모든 독자들이 찬동할 터이지만, 구텐베르크 은하계의 조용하고 수동적인 독자는 서서히 그 자취를 감추고 있다. 쌍방 간의 상호작용적인 인터넷문화에 익숙한 현대의 독자들은 전통적인, 일방적인 독서행위보다는 텍스트와의 진정한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작금의 하이퍼텍스트나 전자책과 같은 논의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정보처리 시스템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전통적인 책이라는 기제는 우리 사회의 체계복잡성을 완벽하게 커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점일 것이다.

개점 25주년을 맞이한 교보문고는 이제 전국에 13개의 영업점과 인터넷 교보문고를 통해서 초창기에 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영업매출을 자랑하고 있다. 교보문고 북클럽회원수가 53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처음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통한 국민정신문화 향상'을 주창하던 25년 전에 비하자면 실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그러나 관건이 되는 점은 여전히 책이라는 매체의 사회적 효용성과 효율성의 문제일지 모른다. 국내 출판 시장에서 가히 독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교보문고의 행보는 우리나라 출판문화의 미래를 규정지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보다 진지한 고민과 노력을 보여주는 교보문고의 앞으로의 25년을 기대해 본다. **한지호**